



# American Airlines® UPDATE

2010년 7월

## 아메리칸 항공의 도쿄(하네다)-뉴욕 운항 최종 승인



### 동경 (하네다) - 뉴욕 (JFK) 간의 운항 서비스 개시

2011년 1월 22일 시작되는 새로운 노선은 나리타에서의 아메리칸 항공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이며,

아메리칸 항공과 원월드 멤버인 일본항공은 하네다와 미국간의 다양한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원월드 창립멤버인 아메리칸 항공은 세계의 양대 금융 요충지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과 뉴욕 JFK 국제 공항간의 데일리 논스톱 운항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일본항공이 운항하는 새로운 도쿄-하네다 노선은 다른 어떤 항공 동맹체 보다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1978년 나리타 국제공항의 개설 이래로 노선이 없었던, 도쿄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하네다-미국간의 운항 개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정부관련 담당 수석 부사장인 Will Ris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검토 후 새로운 루트를 부여해준 미 교통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감사하는 바입니다.”

“원월드의 멤버인 아메리칸 항공은 하네다-미국 구간에 다른 어떤 항공 동맹체보다도 많은 노선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하네다에서 집중적인 운항을 통해 같은 원월드 파트너인 일본항공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아메리칸 항공 국제선 수석 부사장 Craig Kreeger씨가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연간 이용객이 7천 만 명에 달하는 하네다 공항은 아시아 최고이자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입니다. 이러한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고히 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항공의 국제선 책임자 Tsutomu Ando씨는 “우리는 아메리칸 항공의 운항권 획득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미 교통부로부터의 운항권 획득은 아메리칸 항공을 통한 하네다-뉴욕노선의 개시를 바라던 많은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올해 가을 하네다-샌프란시스코와 하네다-호놀룰루의 운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네다 공항이 가장 전략적인 공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원월드 파트너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항공 동맹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고객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Ando씨가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총 247석(퍼스트 클래스 14석, 비즈니스 클래스 37석, 이코노미 클래스 194석)이 장착된 최신의 보잉 777기로 2011년 1월 22일부터 하네다-뉴욕 노선을

운항할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보잉 777기로 나리타에서 시카고, 달라스/포트워스(일 2편),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JFK를 논스톱 운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과의 코드쉐어로 도쿄-미국 노선에 일본항공은 AA코드를, 아메리칸 항공은 JL코드를 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 아메리칸 항공과 일본 항공은 북미와 아시아 사이의 협력사업을 위한 독점 금지법 면제를 교통부에 공동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승인 하에 계획된 협력사업은 아메리칸 항공과 일본 항공 사이에 더 큰 협력을 허용해줄 것이며, 태평양 횡단 노선에서의 항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네다-뉴욕JFK (운항개시:2011년1월22일)	뉴욕JFK-하네다 (운항개시:2011년1월 20일)
AA134편	AA135편
출발 : 오전 06:40	출발 : 오후 06:15
도착 : 오전 05:15	도착 : 오후 10:20 (익일)





# American Airlines® UPDATE

2010년 7월

## 아메리칸 항공, 11월 18일부터 뉴욕JFK-리오데자네이로 매일 운항 개시



### 마이애미-브라질 주4회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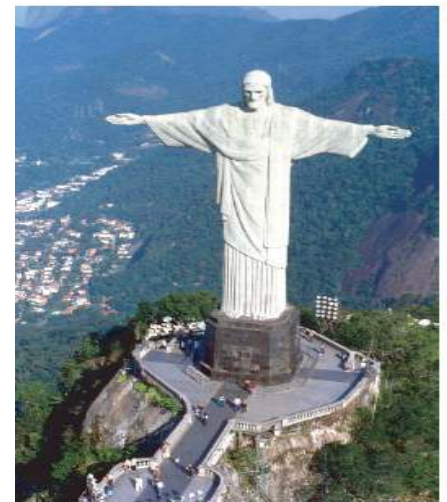
원월드 의 주축 멤버인 아메리칸 항공은 미교통부로부터 11월 18일을 시작으로 미국과 브라질간의 주 11편의 새로운 운항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새로운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과 리오데자네이로를 총225석(비즈니스-30석, 이코노미-195석)을 장착한 보잉 767 -300기로 운항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뉴욕JFK 공항을 통해 보스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신시네티, 인디애나폴리스, 랠러더햄 등의 미 주요도시로부터 리오데자네이로까지의 편리한 연결편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이애미와 브라질리아간의 노선에 아메리칸 항공은 182석(비즈니스-16석, 이코노미-166석)을 보유한 보잉 757기를 투입할 것입니다.

뉴욕 JFK,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와 나리타간의 운항 서비스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브라질간의 여행은 더욱 편리해 질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산후양,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템파 등 40개 이상의 미 도시로부터 마이애미를 통한 브라질리아로의 더 편리한 연결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브라질로의 신규 운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칸 항공의 기존의 서비스와 파트너쉽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원월드 멤버인 LAN항공과 멕시카나 항공, 그리고 GOL항공과 코드쉐어 및 공동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제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아메리칸 항공은 17개국, 42개 도시로의 운항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뉴욕JFK-리오 데자네이로 (운항개시 : 2010년11월18일)	리오데자네이로-뉴욕JFK (운항개시 : 2010년 11월 19일)
AA255편 출발 : 오후 9:25 도착 : 오전 10:40 (익일)	AA256편 출발 : 오후 11:05 도착 : 오전 6:15 (익일)
<b>마이애미-브라질리아 (수,금,토,일)</b> (운항개시 : 2010년11월19일)	<b>브라질리아-마이애미(월,목,토,일)</b> (운항개시 : 2010년11월20일)
AA243편 출발 : 오후 11:10 도착 : 오전 9:35 (익일)	AA248편 출발 : 오후 11:05 도착 : 오전 3:45 (당일)

아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포트워스, 덴버,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왁, 올란도, 필라델피아, 랠러더햄, 샌프란시스코,

## 아메리칸 항공, 737-800기 업그레이드 시행



아메리칸 항공은 고객의 혜택을 추구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76기의 보잉 737-800기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까지 기존의 76기의 737-800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84기와



같은 수준의 신 기종으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기존의 737-800기에 각종 편의사항을 추가한 새로운 737-800이 아메리칸 항공으로 인도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기종은 더 편안하고 넓은 퍼스트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더 넓어진 오버헤드 저장공간, 업데이트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AC전원포트 등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737-800기종에는 새로운 구성으로 추가된 이코노미 12석을 포함하여 총 160석이 장착됩니다. 추가로 인도되는 737기와 새로 개조된 737기는 아메리칸 항공의 주요

허브도시로 전국에 걸쳐 운항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737기종은 달라스와 시카고 허브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점차 새로운 기종으로 운항되는 국제선 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나리타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주요 허브 도시에서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기종으로의 탑승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TULSA의 아메리칸 항공 정비팀에 의한 737 개조 장착의 장면을 보시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www.boeing.com/Features/2010/06/bca\\_american\\_airlines\\_06\\_28\\_10.html](http://www.boeing.com/Features/2010/06/bca_american_airlines_06_28_10.html)

